

주간 농업 · 농촌동향	외신 동향
--------------	-------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0.05)

1. 기능성식품 시장

1) Economist (2009.09.24) 주요 내용

○ 지난 10년간 식품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유기농 확대

-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층은 가급적 덜 가공된 제품을 선호 (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것)
- 유기농식품이 개인의 건강과 지구 환경에도 좋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음.

○ 가공이 덜 된 유기농식품 선호 추세 덕분에 성공한 다국적 식품거대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특정기능을 강화한 기능성식품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함.

- 기능성식품이란 특정 영양성분을 강화하는 등 건강에 더 이롭도록 제조·가공한 식품
- 컨설팅 회사 PricewaterhouseCoopers는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규모를 2007년 780억 달러에서 2013년 1,280억 달러로 급증 전망

○ 대표적인 기능성식품 사례

- 오메가-3 지방산 성분의 강화로 고혈압에 효과가 있도록 한 계란
-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시키도록 스테롤 성분을 첨가한 마가린
- 변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테리아를 풍부하게 함유한 요거트 (프랑스의 거대 식품기업 Danone사(社)의 Activia 등)

○ Danone사 Bernard Hours 이사 인터뷰 내용

- 기능성식품이 최근 들어 새로이 등장한 것은 아님.
- Danone은 1919년부터 바르셀로나의 약국 등에서 요거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음.

- 공공보건 사회운동가들은 오래전부터 펠라그라(니코틴산 결핍) 방지를 위해 밀가루에 비타민B를 첨가하고, 구루병 방지를 위해 우유에 비타민D를 첨가해 왔음.
- 요오드를 첨가한 소금은 갑상선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○ 기능성식품에 대한 최근의 유행은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 시작

- Activia보다 훨씬 이전에 일본에는 요거트와 유사한 야쿠르트(yakult)라는 건강보조 음료가 생겼음.
- 기능성식품에 대해 일본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두배 가량, 유럽인들에 비해서는 세배 가량 많은 금액을 지출함.
- 코카콜라 사(社)가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녹차 향 음료에 대한 실험을 계획했을 때도 첫번째 대상 고객층은 일본의 젊은 여성이었음.

○ 기능성식품에 대한 최근의 트렌드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

- 스포츠음료, 인공 감미료 등 다양한 식품류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속에 자사 제품에 “기적의 성분”을 첨가하고자 극구 노력함.
- 이에 다수의 경쟁사들은 기능성식품에 대한 공통 라벨링, 광고기준 설정 등에 대한 합의에 이름. (“Smart Choices”라 불림)

○ 기능성식품 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장확대 저해요인이 있음.

- 소비자들의 회의적 반응, 규제에 의한 승인의 어려움.
- 각자 나름의 식이요법(식단조절 등)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소비자 인식이 바뀔 수 있음.
- 올초 소비자단체가 코카콜라사가 판매한 비타민 물(Vitamin Water)의 건강강조기능성표시(health claim)에 대해 고발함.
- Danone사 역시 요거트 제품에 대해 이와 비슷한 단체 소송을 당한 바 있음.
- 올해 General Mills사(社)의 유명 곡물 브랜드인 Cheerious가 “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증명됨.”이라는 문구

를 박스에 표기하고자 했으나 FDA에 의해 제지당함.

- Smart Choices 제휴 기업들이 Froot Loops 등 설탕이 든 곡물에 대한 판촉을 시행했을 때 대중의 비난 초래
- 9.21일 미 하원의원 Rosa DeLauro이 건강에 해로운 식품들이 허위광고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FDA에 보냄.

2) 우리나라에의 시사점

(1) 국내 건강기능식품 현황

-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연평균 9%로 늘어나 2007년 현재 7,300 억원으로 증대됨.
 - 식품소비가 열량 공급에서 건강지향 등 웰빙화함에 따라 기능성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대됨.
 - 수출·수입액은 각각 연평균 11%, 10%로 감소하여 국제교역은 감소
 - * 수입액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양보충제의 수입 감소로 2006년 이후 크게 감소

표.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생산 및 수입 실적

단위: 억 원, %

	국내출하액 (a)	수출액 (b)	국내생산계 (a+b)	수입액 (c)	국내시장 규모(a+c)
2004	5,143	532	5,674	4,326	9,469
2005	6,433	423	6,856	5,950	12,383
2006	6,637	389	7,026	2,297	8,935
2007	6,888	371	7,260	2,151	9,039
연평균증감률	10.7	-11.0	8.9	-10.1	1.4

자료: 식품의약품안전청.

(2) 「건강기능식품법」의 한계

- 건강기능식품법은 기능성(건강강조) 표시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적 성격의 법이기 때문에 산업육성정책으로서의 의지와 내용이 빈약
 - 기능성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,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육성하려고 함, 즉 선진국들은 기능성식품을 성장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.
 - * 미국의 경우, 기능성식품산업의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는 608억 달러, 노동소득효과 202억 달러, 고용효과는 45.6만개 인 것으로 추정됨(Natural Products Foundation, 2009).
- 건강기능식품법은 일반 가공식품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능성농산물, 축산가공식품 등이 포함되지 않음.
 - 건강기능식품법은 그간 식이보충제 중심으로 적용되어 일반식품 형태를 갖는 기능성식품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음. 관련 시장규모 등의 정보조차 파악되기 어려움.
 - 기능성농산물은 소비자와의 친화성(익숙함), 국내농가 부가가치의 직접적 제고, 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함.
 - * 세계 건강식품 시장에서 식이보충제보다 (좁은 의미의) 기능성식품 시장 규모가 크고 천연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 우리나라의 식이보충제 시장은 향후 5년간 성장하지 않고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.

(3) 법·제도 추진 방향

- 추진방안
 -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기능성식품자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거나, 또는 「기능성식품자원 육성법(가칭)」 제정 필요
 - 법에는 목적, 기능성식품자원에 대한 정의, 국가·지자체의 책무, 종합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기술개발, 산업지원 등 포함 필요
 - 기능성식품자원의 범위: 기능성식품의 원료·소재로 쓰이는 농산물 및

천연자원, 그리고 일반 농산물에 비해 기능성이 강한 농산물 품목이나 품종, 유제품 등 축산물가공품, 약초자원, 누에 등 양잠자원을 포괄함, 기능성농산물의 예: 귀리, 리코펜 다량함유 토마토, 비타민 강화 쌀 등

(4) 우선 추진 과제

- 국내 기능성식품자원관련 연구현황 DB 구축
 - R&D 추진시 중복을 배제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- 농산물 품목별 기능성분 함유량에 관한 표준 DB구축
 - 농산물에 내재하는 기능성성분에 관한 대국민 홍보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 및 소비 증대 효과를 가져옴.
- 기능성식품 시장현황 및 유통실태 파악
 - 다양한 기능성식품의 시장규모와 거래실태를 파악함.
 - 국내외 시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과 데이터를 확보함.